

# 순천시, 스포츠 복지 3대 전략 추진...“평생 체육도시 선도”

### 체육 예산 158억으로 확대... 지난해 보다 18억 증가 신대지구 스포츠센터·수영장 7월 개관... 인프라 박차

순천시가 올해 스포츠 복지실현을 위해 시민 건강도모 프로그램과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기반을 확충한다.

18일 순천시에 따르면 시는 체육예산을 지난해 보다 18억원 증가한 158억원으로 확대해 연령과 세대를 아우르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스포츠 복지 실현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스포츠 복지실현을 위한 3대 전략으로 ▲누구나 즐기는 체육활동 활성화 ▲누구나 편하게 이용 가능한 체육환경 조성 ▲차별화된 스포츠마케팅으로 도시 경쟁력 강화를 선정했다.

순천시는 누구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순천시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20명이 찾아가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라 지난 3월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4월부터 에어로빅, 체조, 탁구, 그라운드골프 등 일상 속에서 쉽게 생활 체육을 접할 수 있도록 지도에 나갈 예정이다.

또 선진국형 스포츠클럽을 순천시에 맞게 도입해 다세대·다연령대의 시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누구나 쉽게 스포츠를 접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시민 누구나 생활권 내에서 다양한 체육활동을 편리하게 즐길 수 있도록 신대지구 스포츠센터 및 수영장 준공, 팔마종합운동장 내 트레이닝 센터 건립, 오천지구 (가칭) 어울림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에 나선다.

신대지구 스포츠센터와 유·청소년 수영장은 올해 준공을 마치고 오는 7월 개관을 앞두고 있고, 팔마종합운동장 트레이닝센터는 2021년 말 준공이 목표다.

풍덕 배수펌프장 유수지 3만1000㎡에 조성 계획인 (가칭) 어울림 국민체육센터는 설계공모가 진행 중이며,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종합 스포츠단지가 될 순천형 스포츠파크는 타당성 검토 및 입지기준 분석을 위한 용역을 4월부터 10



신대지구 스포츠센터 및 유·청소년 수영장 전경.

개월간 실시할 예정이다. 차별화된 스포츠마케팅으로 도시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 체육형 스포츠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전지훈련 중심도시로 도약, 수준 높은 국제 및 전국단위 대회 유치, 제6회 전남체전 대회 준비 등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시민 누구나 생활권 내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육시설 확충은 물론 체육을 통한 지역 발전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 광양시, 공모·시상사업 역대 최고 성과

### 28개 사업 155억 확보... 전년 대비 22억 증가

광양시가 시장의 각종 비리 의혹으로 곤경에 처한 가운데 외부기관 공모·시상사업에 잇따라 선정되는 등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18일 광양시에 따르면 시는 3월말 현재까지 중앙부처·전남도 등 외부 기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모·시상사업에 28개가 선정돼 155억원을 확보했다. 이 같은 올 1분기 사업비 확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22억원이나 상향된 것으로 ‘역대 최고 성과’를 향한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올 초부터 공모·시상사업 발굴보고회를 열어 상급기관의 업무계획을 분석해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연례 반복사업은 추진상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등 총력을 기울였다.

1분기 공모·시상사업 총 발굴규모는 197개 사업

에 3069억원이다. 이 가운데 28건(155억원)이 선정되고, 10건 탈락, 나머지 159건(2890억원)은 심사 중이거나 향후 응모 준비 중이다.

주요 선정 공모사업은 ▲농촌형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48억원) ▲스마트타운 캠프지사업(40억원) ▲도시형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12억원) 등이다.

시상사업은 지난해 하반기 신속집행 최종평가에서 최우수기관, 전남도 다산안전대상 2년 연속 수

상기관으로 선정됐다.

최근 중앙부처의 사업추진 방식이 기존 단순 분배방식의 보조사업에서 선택과 집중을 강조하는 공모사업으로 바뀌는 흐름에 맞춰, 선정단계부터 차별화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김복덕 광양시 기획예산실장은 “공모·시상사업은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 방향과 광양시가 추구하는 지역특성이 일치하는 사업이 대부분”이라며 “전부서가 중앙부처, 전남도 등의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해 응모함으로써 선정률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 안전하게 귀가하세요

### 고흥군 ‘그림자 조명’ 추가

고흥군이 여성친화도시 기반 조성사업으로 야간 여성·아동·청소년의 왕래가 빈번한 구간에 귀가 안전 보장을 위한 그림자 조명(로그젝터)을 지난해 13개소에 이어 올해도 10개소를 추가 설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

야간에 귀가하는 주민들에게 따뜻한 감성문구와 이미지를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줘 마음 편히 귀가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됐다.

그림자 조명(로그젝터)은 렌즈에 홍보·안내·경고 등 다양한 문구와 이미지를 새겨 LED 조명을 통해 벽이나 바닥에 투사하는 장치로 주민들에게는 안전 체감도를 높이고 범죄자에게는 심리적 경각심을 줘 여성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다.

그림자 조명 이미지는 안심하고 귀가하세요, 혼자가 아닙니다, 가장 소중한 건 당신이에요, 여성 긴급전화 1366,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등의 내용으로 안전을 강조하는 문구와 따뜻한 감성문구로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u@kwangju.co.kr

## “여수 역사 간직한 유물 찾습니다”

### 시, 내달 3일까지 시립박물관 전시 유물 구입

여수시가 다음 달 3일까지 여수시립박물관 전시자료로 활용할 유물을 신청받아 구입할 예정이다.

여수시에 따르면 좌수영 발행 문서 및 서적 등 전라좌수영과 관련한 자료를 비롯해 여수지역 인물 자료(김충, 박영규, 유탁, 정철, 정종선, 오형목 등), 고문헌과 지리지 등 여수지역 향토자료들을 찾고 있다.

또 조선 수군 자료(수군조련도, 병법서 등)와 해양문화 관련자료(어민 생활자료, 해양산업 자료 등), 박물관 전시에 활용할만한 자료면 신청 가능하다.

유물 매도 신청은 개인, 문화재매매업자, 법인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만 소유나 취득 경로가 불분명하거나 도굴, 도난 등 불법으로 취득한 유물은 제외된다.

신청은 여수시청 홈페이지에서 매도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방문하거나 문화예술과 유물구입담당 앞으로 우편을 보내거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여수시립박물관은 웅천 이순신공원 내에 연면적 약 6426㎡ 규모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된다. 2024년 개관을 목표로 건립 추진 중이다.

/여수=김정화 기자 chkim@kwangju.co.kr

## 구례군 ‘농촌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본격 운영

### 6명 지리산 휴양마을서 3~6개월 영농실습 등

구례군이 ‘농촌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구례군에 따르면 구례군은 지난달 군청 누리집을 통해 참가자를 공개 모집한 뒤 지난 12일부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5명 모집에 39명이 신청했으며 군은 전화·서면 면접과 운영진 회의 등을 거쳐 최종 6명을 선발했다.

참가자들은 구례군 마산면 지리산 효장수권역 농촌체험휴양마을에 입주한다.

6명 중 4명은 4월 12일부터 10월 11일까지 6개월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2명은 7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참여할 계획이다.

참가자들은 농촌 이해, 영농실습, 지역 탐색, 농촌 체험 등 교육과 숙박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월 15일 이상 교육에 성실히 출석하면 월 30만원의 연수비도 지급된다.

마산면 지리산 효장수권역 농촌체험휴양마을은 4개 마을 13명이 권역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귀농·귀촌이 활발한 마을이다.

친환경 농업, 과수원, 재배시설, 조정 등 다양한 농업 기반을 보유하고 있어 논·밭농사, 시설 재배 등 여러 분야의 영농체험 교육이 가능하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도시민들이 구례에서 농촌 생활을 미리 경험할 값진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런 경험이 구례 정착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 전라도 영광 촌놈 이기원이 쓴

## ‘회전목마 인생’

인생은 회전목마처럼 반복적으로 돌아간다. 단지 주인공이 다를 뿐이다.

“파리의 유명한 카페 한쪽 벽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다고 한다. 걱정에는 두 가지 사유가 있다. 성공할 것이나 실패할 것이나. 만약 실패했다면 병이 들 것이나 안 들 것이나 걱정이 병이 들었다면 살게 될 것이나 죽게 될 것이나 걱정이. 죽게 된다면 천당이나 지옥이나 걱정이. 불행하게도 지옥에 떨어진다. 이미 가 있는 수많은 동료들과 약속하기에 비해 걱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이다.”

정가 13,000원

## ‘밤벌레의 행복’

강석이의 유머인생 유머와 에세이의 만남

작은 책상과 TV와 노트북, 책꽂이와 장롱이 서로 기대고 있는 서재방인지 골방인지에 푸르그고 앉아 지나온 발자취를 회상하며 글을 써본다. 이왕이면 재미도 곁들여서 말이다. 이를테면 유머형 에세이다. 별로 특별한 삶을 살아온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는 소중한 인생이라고 자위해본다. 이 책이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고 삶의 활력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가 12,000원